

GS · S-Oil, 에너지재단 20억원씩 출연

GS칼텍스와 S-Oil은 한국에너지재단에 각각 20억원을 출연했다고 1월1일 발표했다.

SK는 2006년 20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.

에너지재단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에너지 복지를 확충할 목적으로 SK, GS칼텍스, S-Oil 등 정유기업과 한국 전력 및 발전 자회사, 석유공사, 가스공사, 광업진흥공사,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관련 16사가 참여해 2006년 말 설립한 공익법인이다.

에너지재단은 고효율 보일러 보급 등 에너지 복지사업을 하고,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교류협력 활동도 펼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7/02/01>